

신혜원의 가정법 산책 >> 글보기

할머니의 사랑

lawhwshin on June 22, 2011

한인 이민 역사의 중심지인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에 의거해 한인 가정의 이혼 케이스를 접하고 법적으로 처리해 온 것이 어언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되었다.

비록 미국법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이혼 소송이나, 한국인의 정서, 가족관, 결혼관, 인생관에 대하여, 변호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끈끈한 마음 알이를 겪는 것은, 국적에 상관없이 나 또한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그 속에서 자라난 이유일 것이다.

몸은 멀리 미국 땅에서 타향살이를 한 지 오래지만 미국법을 접해본 기회보다는 한국법에 대한 상식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 한인들의 실정이다. 기본적인 개념이야 보편적으로 다 통하지 않겠느냐는 법의 실체를 받쳐주는 문화와 가치관에 큰 차이가 있다.

가정법 상담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우리가 이혼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둘이 같이 가서 사인하면 됩니까? 혹은 나이가 지긋하신 경우에는 같이 가서 이혼장에 도장 찍으려는데 언제 가면 할 수 있습니까? 등이다. 이 질문이 바로 미국에 사는 한인이 고국을 떠나 올때 가지고 온 한국식 이혼에 대한 법적 개념이라 할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이혼은 배우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의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 의해 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제도 및 절차로 인해 가주에서는 한국 법이 정의, 규정하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하겠다고 할 때조차도, 그것을 제재 할 수 있는 법적 대안이 없다.

한 마디로 한 쪽이라도 싫으면 억지로 살지 말라는 것이다. 온갖 억울한 아픔을 쓸어 안고, 싫든 좋든 끝까지 가정을 지켜보려는 사람에게는 너무 일방적인 가혹한 법적 처사일지도 모른다. 물론 캘리포니아 주에도 합의 이혼이 있다. 법이 말하는 합의 이혼이란 이혼 소송에 따르는 제반 문제, 즉 자녀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 생활비, 재산 및 부채 분배 등을 법정을 통한 재판 없이 당사자간에 합의를 이루어 합의이혼 판결문을 받는다는 것이지, 이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이혼을 온 정성을 기울여 막아낸 한 할머니가 계셨다. 70이 한참 넘고 또 대기실에 기다리는 다른 손님들의 눈도 있고 해서 먼저 들어오시라 했다. 할머니 말씀인즉, 내 영감이 평생 술과 여자로 밖에서 진을 치고 산 사람ियो. 이제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는데 나한테 이혼장을 보냈으니, 나 이제 이혼당하면 죽어서 조상님 앞에 무슨 낯으로 가겠수? 은혜 평생 안 잊을 테니 나 한번만 살려 달라는 거였다.

칠십 고회의 주름 위로 똑똑 떨어지는 눈물 앞에 법의 테두리를 아는 나로서는 정말

난감하기 그지 없었다. 첫날은 기본적으로 남편의 이혼 신청을 막을 방법은 없으나 할머니 권리 청구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혼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시간을 지연시키며, 할아버지 마음을 돌이켜 이혼 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해를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무조건 '선상님만 믿어유'만 계속하시며 주머니에서 구겨질 대로 구겨진 20 달러짜리를 꺼내시는 할머니. 마음이 답답했다.

그날 이후, 사무실에 들어설 때면 소파에서 잠드신 할머니를 깨우는 것이 그날의 급선무였다. 할아버지가 일사천리로 이혼 소송을 진행 시키지 못하게 할머니의 Response(이혼신청에 대한 응답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 와중에도 집 나간 할아버지 끼니를 걱정하며 밤새 열무 김치 담그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밀 반찬만 골라 만들어 아침저녁으로 할아버지를 찾아 해매는 할머니.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이러기를 두어 달, 하루는 할머니가 '영감이 이혼 취하한대요, 선상님.' 드디어 할아버지가 Request for Dismissal(소송 취하 서류)에 사인을 했고 법원에 제출해 급한대로 이혼은 막았다. 그후로도 할머니는 '선상님, 참말로 취하됐지유?' 라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 차례.

그러던 어느 날 또 사무실 소파에 잠드신 할머니를 보고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비닐봉지 몇 개를 가지고 오신 할머니 왈, "내가 하도 걱정이 돼서, 다른 변호사 양반을 찾아가 이혼이 참말로 취하가 된 것인지 여기서 해준 서류를 다 꺼내놓고 물었더니만, 아, 그 양반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일을 잘해주었냐는 거여. 내가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조상님 뵈러 갈수 있게 됐시유, 선상님." 건네주신 봉지 속에는 할머니도 자주 드시지 못했을 것 같은 얼린 옥동과 밤새 만드신 밀반찬이 들어 있었다. (끝)

** 위의 기사는 본 변호사와 관련된 특정 의뢰인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본 기사를 위하여 가상인물 및 상황을 설정,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